

www.platinumpen.co.kr

한글 필기에 강한 극세필의 명품 필기구 -
PLATINUM
SINCE 1919



PLATINUM
Fine Writing Instrument

만년필 IV
지침서

한글 필기에 강한 극세필의 명품 필기구 -
 **PLATINUM**
SINCE 1919

플래티넘의 역사

PLATINUM History

플래티넘의 역사는 1919년부터 시작됩니다.

1919년 플래티넘의 창시자 나카다 쥬니치 사장이 나카야 제작소를 창립하면서 플래티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1924년 동경의 우에노로 사업장을 옮기면서 공장을 세우게 되고 당시에는 혁신적인 판매 방법인 통신 판매 방식으로 최고의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1948년 플래티넘사에서는 일본 최초의 볼펜을 출시하였고

1957년 카트리지식 만년필을 처음으로 실용화 하면서 네오 스트 60을 발매합니다.

1966년 AUTO PEN 이라고 불리는 롤러볼펜을 만들어 1980년까지 약 10억자루를 넘게 판매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01 외에도 세계최초로 매직볼 카트리지, 일본 최초의 5각형 디자인의 펜촉 개발등 다양한 제품으로 만년필의 역사에 한 축을 담당하게 됩니다. 창업자의 뜻을 이어나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제작에 임하는 플래티넘사는 **종업원수 1,800명** **만년필 월 생산량 70만 자루, 잉크 월 생산량 1,100만병**이르는 탄탄한 제품 생산 구조를 갖추게 되고 일본내 판매망의 완비와 철저한 AS 서비스를 위해 일본 내 6대 도시에 출장소를 설치, 그 외 주요도시에는 연락소를 배치, 판매망은 일본 전역을 그물망처럼 촘촘히 엮어, 북쪽은 북해도 부터, 남쪽은 오키나와까지 주요 대리점 200여개점, 판매점은 25,000여 점에 이르게 됩니다.

또 한 플래티넘사는 내수 판매에만 집중하지 않고 해외수출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해 외수출로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 스페인, 남아프리카, 스웨덴, 대만, 덴마크, 영국,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홍콩 등 약 15개국에 대리점을 두고 현지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며 그 외에도 약 83개국에 진출하여 해외 판매시장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 프레지던트 골드 만년필

만년필 사용시 꼭 지키면 좋은 습관

- 1** 만년필 세척은 한달에 한번 꼭 해줍니다. 촉만 하지말고 캡 안쪽도 반드시 닦아줘야 합니다.
- 2** 만년필 사용 시, 필압을 빼고 부드럽고 부드럽게 필기를 하셔야 합니다.
※ 위 두가지 사항만 지켜도 고장의 90% 원인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3** 촉은 항상 위를 향하게 하여 보관하고 파우치를 사용합니다.
- 4** 만년필 잉크는 마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필기를 안 할때는 뚜껑을 반드시 닫아줍니다.
- 5** 잘못된 필기습관은 펜을 망칩니다. 좋은 종이, 좋은 잉크, 좋은 필기 자세가 좋습니다.



밸런스-S 만년필 PTB 5000B (컨버터, 카트리지 방식)

세계 최고의 극세필(UEF : Ultra EF 측)과의 만남.

학생들의 깔끔한 필기로 노트 정리를 할 때, 여성들이 다이어리에 작은 글씨를 써야할 때, 수험생들이나 직장인들이 깨끗하고 정갈한 글씨체로 답안지나 기안서를 작성할 때, 기존의 두꺼운 만년필 측으로는 세밀한 글씨를 쓰기가 힘들었습니다. 획과 획이 겹쳐서 다른 글자로 보이기 때문이었지만 이제 UEF로 쓰시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노트필기, 기안서, 답안지, 다이어리 그 어떤 종이에도 번짐없이 깨끗한 필기를 가능하게 하며 만년필의 품격까지 더해줍니다.

- 펜촉 : Wide 스테인레스 스틸 도금 측
- 펜촉 사이즈 : UEF, EF, F, M
- 펜크기 : 136.5mm(길이) x 14.5mm(직경)
- 펜 중량 : 16g
- 바디 : AS 레진



만년필이란?

만년필이란 필압없이 사용할수 있는 필기구로 부드럽게 필기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보통 볼펜은 종이에 새긴다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필압이 필요한거죠 그래서 종이 뒷면에 글씨가 배기게 됩니다. 하지만 만년필은 필압없이 **종이 위를 스치듯이 필기하기 때문에 장시간 필기에도 손이 피로하지 않습니다.** 잉크를 종이에 새기는게 아니라 흘려쓴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필기구다 보니 저항감이 적어 빠른 속필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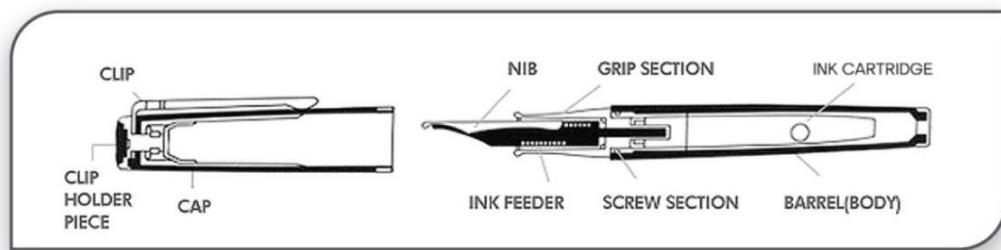
일반적으로 EF는 이리듐이 작기 때문에 약간 거친 필기감을 제공하지만 **얇은 세필이 가능하며 M촉이나 B촉 같이** 이리듐이 크고 **닿는 면적이 넓은 촉**들은 처음부터 부드러운 필기감을 제공하나 세필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실사용보다는 서명이나 조인식에 쓰이고** 있습니다.

만년필은 중력과 모세관 현상으로 필기가 되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필의 필기감을 좌우하는 상당 부분은 촉과 피드가 차지하는데 아직까지 구낸 기술력이 해외 유명 브랜드보다 부족합니다. 그런 이유로 만년필 시장의 대부분을 해외 브랜드들이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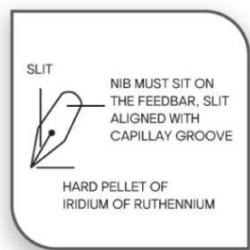
만년필의 필기가 되는 과정은 만년필 잉크 리저브(탱크)에 있던 잉크가 피드를 통하여 전달이 되고 피드에서 하트홀을 통해서 나온 잉크가 슬릿을 따라서 촉의 펠릿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필기시 촉이 종이에 닿으면서 슬릿이 벌어진 틈을 통해 잉크가 흘러** 종이 위에 필기가 되는 것이 잉크의 흐름입니다.

피스톤 필러 방식이 일반적으로 충전할 때 잉크가 한번 위로 흐르고 필기되면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조금 더 **흐름이 좋고 세척도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트리지 방식**은 잉크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만 배럴 안에 또 하나의 보호막이 있어서 **잉크가 잘 터지거나 깨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 만년필의 구조와 각부의 명칭



▷ 닦(압면)





▶ 밸런스-S 만년필

만년필 잡는 자세와 필압의 상관관계

만년필 촉의 밸런스가 잘 맞아도
소비자의 잘못된 필기습관에 따라 만년필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리듐의 양쪽 면이 균일하게 종이 위에 달아서 **필기**가 되야 합니다. 한쪽으로 너무 비틀어 필기하면 **편마모**가 심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촉이 한쪽만 **마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필압을 강하게 해서 쓰면 촉이 벌어질 수도 있고 배럴의 아주 뒷부분을 잡고 오랜 시간 필기하면 촉과 피드가 벌어질 수도 있으니, 가장 중요한 것은 **손에 힘을 빼고 이리듐의 두 쪽이 균일하게 달을 수 있게 잡고 부드럽게 쓰는 것**입니다.

만년필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대부분 필압이 강하고 조절이 안되어서 **연성 보다는 경성 만년필을 추천**해 드립니다. 만년필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필압이 조절이 자유자재로 되다보니 한 개의 펜으로도 굵기를 조절 할 수도 있게 됩니다.



▶ 데스크 펜

그리고 일반적으로 펜을 세워쓰는 각이 클수록 얇게 필기가 가능하고 펜을 눕혀 쓸수록 두껍게 나옵니다. 그리고 펜의 앞부분을 잡고 쓰는 분은 필기 각도가 크면서 필압이 강한편이고 펜의 뒷부분을 잡고 쓰는 고객님은 필기 각도가 작으면서도 필압이 약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의 필기 각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만년필 회사에서는 약 55도 정도의 필기각을 평균으로 잡아 테스트를 해서 제품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기 각은 약 55 정도가 가장 무난한 각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년필은 서양 문화의 산물이다보니 아무래도 우리나라 보다 서양사람들 기준에 맞춰나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유저와 서양 유저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바로 필기 시 뚜껑을 꽂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이유는 필기 문화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만년필은 필압 없이 부드럽게 써야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만년필은 펜 무게의 반정도가 캡의 무게입니다.

손에서는 아무리 힘을 빼고 쓴다고 해도 뚜껑을 뒤에 꽂으면 필압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서양 사람들처럼 **무거운 뚜껑은 뽑아서 책상 위에 세워놓고 쓰는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배럴에 미세한 스크레치가 생기는 것도 예방할 수 도 있습니다. 뚜껑을 뒤에 꽂으면 또 길이가 길어지면서 밸런스가 길어져서 펜을 세우지 않고 눕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니펜은 뚜껑을 꽂는게 좋습니다)

캡은 가급적 뽑아쓰는 것이 만년필에는 좋습니다



▶ 플래티넘 피그먼트 잉크

원래 잉크라는 것이 대부분의 성분이 물이기 때문에 공기와 닿는 순간부터 마르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년필을 **안 쓸때는 뚜껑을 꽂아놓고 보관해야 잉크가 마르는 현상을 예방 할 수 있습니다.** 만년필을 오랜시간 안쓸때 뚜껑을 열어놓고 있으면 잉크가 말라 첫번째 글자나 첫번째 줄이 필기가 잘 안될 수도 있습니다



▶ 플래티넘 잉크



▶ 프레지던트 실버 만년필

만년필은 고가의 예술품입니다.

보관도 일반 필통이나 주머니 보다는 [파우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파우치는 사람마다의 특성에 따라 선호도가 틀리지만 일반적으로 하드 형의 가죽 파우치가 더 좋습니다. 너무 소프트한 제품은 떨어트렸을 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파우치 보관 시에는 만년필 뚜껑을 닫아서 쪽이 위로 향하게 하여 보관하시면 됩니다.



▶ 플래티넘 잉크 카트리지



▶ 18K 스탠다드 만년필

경성 촉 VS 연성 촉

만년필의 촉은 대부분 경성(딱딱함) 과 연성 (부드러움)으로 나누게 됩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필압이 강하기 때문에 경성 만년필을 추천](#)드립니다. 만년필을 오래 사용하신 매니아분들이나 컬렉터 분들에게는 연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연성 만년필은 펠리칸사의 M1000](#) 입니다. 그리고 [경성과 연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는 오로라](#)가 있습니다. [오로라 제품의 만년필은](#) 보통 필기 시에는 연성의 느낌을 그리고 빨리 필기하거나 깍어쓰거나 멈출때는 경성의 느낌입니다.

잘 모르시는 소비자분들이 오로라를 경성족의 대명사로 알고 계시지만 [오로라야 말로 경성과 연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유일한 촉감을 제공하는 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18K 스탠다드 만년필

경성과 연성의 중간에 위치한 제품으로는 펠리칸의 M400 입니다. 일반적으로 M400 보다 크면 연성 제품으로 작으면 경성 제품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잉크는 PH 지수에 따라 산성과 염기성으로 나뉘지만 촉의 성질을 구분하는 숫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필기시 촉이 휙고 슬릿이 벌어지는 정도로 경성인지 연성인지 구분을 하게 되는 것 입니다.

촉의 모양을 봐서 촉이 길고, [하트홀이 길수록 일반적으로 연성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성펜은 촉의 가로폭이 좁고 세로 길이가 길수록 잘 휙기 때문에 부드러운 필기감을 제공하게 되며, 경성은 그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년필의 올바른 사용



▶ 프레지던트 골드 만년필

만년필 촉의 굵기는 **제일 얇은 UEF(Ultra EF), 세밀한 EF, 평균 굵기인 F, 좀 굵은 M 등**으로 나뉩니다.

만년필은 일반적으로 필기를 하면 할 수록 부드러운 필기감을 제공하고 이리듐이 마모되면서 약간씩 굵어지게 되므로, 소비자가 원하는 촉 보다는 한단계 더 얇은 촉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 방법입니다. 만년필 구매 시 F촉을 사용하고 싶다면 EF 촉을 구매해서 필기를 거듭하다보면 부드러워지게 되고 굵기도 조금은 두꺼워지기 때문에 **원래 구매하고자 하는 사이즈보다 한단계 더 얇은 촉을 추천**해 주는게 장기간 필기하고자 하는분에게는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사용이나 필기용으로는 EF,F촉 등**이 사용되고 **서명이나 조인식에는 M,B 촉등**이 쓰입니다.

만년필 글자의 굵기는 촉의 두께에 따라 조절도 되지만 필압의 조절과 잉크, 종이 그리고 필기 각도와 속도에 따라서도 굵기 조절은 가능합니다. 또한 조건에 따라 번지는 잉크인지 아닌지, 종이가 번지는지 아닌지 등에 따라 굵기가 틀려지며 만년필과 잉크, 종이가 같은 조건이라도 필기 속도에 따라서도 천천히 필기를 하시면



▶ 프레지던트 골드 만년필

굵게나오며 빠르게 하면 얇은 선의 필기가 됩니다.

보통 재생지나 안 좋은 종이를 쓰면 종이 찌꺼기가 슬릿을 통하여 올라가서 끼일 수도 있으니 **좋은 품질의 종이를 쓰는것도 만년필에 좋습니다.**

만년필 슬릿에 이물질이 껐을땐 수압이 센 주사기를 통해 직접 물을 뿌려주시면 세척에 도움이 됩니다. 세필 만년필을 처음 구매하는 분들은 처음에 만년필 닦지 않게 부드럽지 않고 종이를 긁는다거나 거친 필기감을 싫어하셔서 빨리 길들이기 위해서 원을 그리거나 트레싱지에 원 그리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장 좋은 길들이기 방법은 계속 필기를 하시면** 본인의 필기 습관에 맞게 적당히 이리듐이 마모 되면서 최상의 필기감을 선사하게 될 것입니다.

만년필을 아낀다고 모셔만 놓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매일 매일 필기를 하여 잉크가 피드를 통해 흐르게 해 줘야 피드가 막히거나 촉에 잉크가 말라서 고착화 되지 않습니다. 낙서도 좋고 시도 좋고 일기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필기를 해야 더 좋은 필기감을 제공하게 됩니다.

만년필의 영원한 동반자 잉크

잉크는 만년필 사용의 필수 파트너입니다.

잉크는 촉과 종이 사이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서 부드럽게** 해줍니다. 점성이 높고 수분이 별로 안 높은 잉크는 안 번지고 진한 색을 제공합니다. 반대로 점성이 낮고 수분이 높은 잉크는 좀 더 잘 번지는 대신 그라데이션을 잘 살리는 대신 오랜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래질 수 있습니다.

보통 잉크는 PH 지수에 따라 산성과 염기성으로 나뉘는데 보통 수돗물의 경우 PH 지수 7로서 중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PH 지수가 1~6은 산성에, 8을 넘으면 염기성으로 봅니다. 산성 잉크와 염기성 잉크는 그 용도와 특성에 맞게 골라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염기성 대표 잉크는 펠리칸 4001 잉크입니다.**

대개의 잉크병은 아래 부분이 넓적하고 병이 두껍고 무거워 잉크가 조금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유는 잉크병이 잘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무게를 무겁게 하고 병의 균형을 저중심으로 설계를 했기 때문입니다.

만년필 촉의 세척 시기는 촉 뒷면에 잉크 찌꺼기가 고착화 되기 전에 하시면 됩니다. 그 찌꺼기가 고착화되면 피드와 촉의 연결 부위에 찌꺼기가 껴서 잉크 흐름이 좋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검정색 잉크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되지만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잉크는 블루블랙**입니다. **블루블랙은 문서 보존용 잉크로써 처음엔 블루로 쓰여지지만 나중에 마르고 나면 블랙으로 색**이 변하게 됩니다. 블루블랙이 내수성과 내광성이 좋은 잉크입니다. 그러나 요즘엔 **문서 보존용으로 물에도 잉크가 번지지 않는 카본잉크**가 있습니다. 점성이 높아 대신 세척을 자주 해줘야 합니다.

블랙잉크 중에서는 **오로라 브랜드의 블랙 잉크가 세계 최고의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연의 블랙 잉크 답게 진하고 적절한 점성과 부드러운 필기감을 제공하고 그라데이션도 잘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외 잉크로 유명한 회사는 펠리칸이 있으며, 잉크 제조 회사로 시작해서 지금도 많은 타 브랜드에 만년필 잉크를 OEM 방식으로 생산을하고 있습니다

PLATINUM INK INK 400



• 30ml (검정)



• 30ml (블루블랙)



• 30ml (적색)

CARBON INK INKC 1500

카본 잉크는 안료계 잉크를 사용하므로 일광, 수분에 의한 퇴색이 없기 때문에 문서의 영구 보존에 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번짐에 강해 고유의 색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공문서등에 많이 쓰입니다.



• 60ml (검정)



INK CARTRIDGES SPSQ 400

• 검정, 적색, 블루블랙 (각 10개입)



PLATINUM CONVERTER CONVERTER 500

PLATINUM의 컨버터는 오직 플래티넘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고,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성능을 갖춘데 비해 저렴한 보급형대의 가격대 제품입니다. 컨버터는 평상 시 잉크를 보관한 채 필기에 사용되지만 만년필 세척 시에도 사용됩니다.



PIGMENT INK INKC 1500

대부분의 잉크로 쓴 글씨는 시간이 지나면 바래져서 원래의 색상을 알아볼 수 없고 무슨 글자인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플래티넘 잉크는 원래의 글씨를 최상의 상태로 보존해 드립니다.



• 레드, 블루, 세피아

CARBON INK CARTRIDGES SPC 200



• 1팩 : 4개입

COLOR INK CARTRIDGES SPN 100A



• 1팩 : 2개입

	레드
	라이트 블루
	핑크
	퍼플
	옐로우
	그린
	브라운



만년필 촉의 생산 과정

만년필 촉을 만들 때는 각 브랜드마다 다른 노하우와 각기 다른 합금 비율로 얇은 금속판을 우선 만듭니다. 이때 **금속판의 미세한 두께와 합금비율에 따라 경성과 연성의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만년필 촉의 생산 과정은 넓은 판으로 제단된 원판에서 촉의 모양으로 제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촉 위에 각 브랜드의 로고, 촉 사이즈 등을 압연으로 찍어내고, 그리고 뒤집어서 전기 접합으로 이리듐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아 몬드 절단기로 이리듐을 5대5로 재단하게 되는데 이때 기술력의 차이로 정확한 비율로 커팅이 되느냐 안되는냐 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나서 펜촉을 연마하게 되고 마무리 작업으로 광을 내거나 합니다.

촉 생산을 간단히 적었지만 촉을 휘게하고 합금을 만들어 내는 과정 등은 더 복잡합니다. 여러가지 기술력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만년필 촉이고 그 촉에 의해 많은 부분이 결정이 납니다. 촉이 생산된 뒤에는 피드와 촉을 조립하여 만년필에 장착하게 됩니다.

만년필 촉의 제조 공정



4호에 걸친 암죽
궁정을 통합합니다.



1호차 암죽궁정



2호차 암죽궁정



3호차 암죽궁정



4호차 암죽궁정



촉의 모양으로 재단 합니다.



홀 편침 공정



열처리 공정



18K 문장 날인 공정



구부리기 공정



이리듐 용접



표면 연마



촉끝 가공



풀리쉬



슬릿컷팅



데버링
(표면을 매끄럽게)



광택 및
핸드 폴리쉬



▶ 프레지던트 골드 만년필

만년필 용어 설명

● 로듐 촉

금촉보다 투톤 촉에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금 위에 도금으로 된 로듐 촉으로 많이 쓰입니다.

● 스터링 실버

순은 제품은 광택이 별로 좋지 않고, 경도가 낮아서 보통 92.5%의 은을 쓰게 되는데 이것을 스터링 실버라고 합니다. 스터링 실버에 때가 묻거나 작은 기스는 지우개로 지우면 좀 지워지기도 합니다.

● 버메일

스터링 실버제품위에 금도금 한 것을 버메일이라고 합니다.

● 플래티넘

백금, 보통 금보다 훨씬 비싼 소재여서 플래티넘 촉으로는 제품이 몇 개 나오지 않습니다.

● 이리듐

백금계 금속으로 마모와 부식에 강해 펜촉끝에 사용되며 이리듐의 마모에 따라 필기감이 틀려지게 됩니다. 보통 전기접합으로 촉에 붙이게 됩니다.

● 브라스

동과 아연의 합금, 활동이라고 합니다.

● 스텐레스 스틸

무게가 무거워 촉에만 사용되고 배럴에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경도가 강하고 부식과 마모에 강해 근래에 저가펜의 촉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멀티펜의 최강자 -

일본내 판매 1위 플래티넘 멀티펜입니다!!

다양한 용도에 맞추어 빠르게 반응하면서 합리적인 기능을 갖춘 멀티펜!!

샤프와 두가지 칼라의 볼펜이 한개의 펜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꺼번에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다재 다능한 멀티펜!!

3액션 센스 MWB 1000BS



·기능 : 0.5mm 샤프/검정색 볼펜(0.7mm)/적색 볼펜(0.7mm) · 펜 크기 : 146mm(길이) x 9.2mm(직경)

·무게 : 18g ·리필 : BSP-100S

3액션 포커스 MWB 1000B



·기능 : 0.5mm 샤프/검정색 볼펜(0.7mm)/적색 볼펜(0.7mm) · 펜 크기 : 146mm(길이) x 9.4mm(직경)

·무게 : 15.4g ·리필 : BSP-100S

3액션 메리트 BWBM 1000



·기능 : 검정색 볼펜/청색 볼펜(0.7mm)/적색 볼펜(0.7mm) · 펜 크기 : 128mm(길이) x 9.5mm(직경)

·무게 : 14g ·리필 : BSP-100S

preppy

프레피 만년필 PPQ 200

- ▷ 플래티넘의 프레피 만년필은 보급형 모델로서 사무용, 학생용으로 가볍게 쓰기 좋은 만년필입니다.
 - ▷ 일본제의 만년필 답게 보급형이지만 필기에 좋은 굵기를 갖추었으며, 칼라닙을 사용하여 용도에 따라 색상 구분이 용이합니다.
- ※ 평상시에는 0.5mm의 굵기로 필기가 됩니다. 얇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펜을 세워쓰시고 필압없이 사용하시면 0.3mm까지 필기가 가능 합니다.

잉크 카트리지 / 컨버터 겸용 방식

각 펜 색상과 동일한 잉크카트리지 1개 내장.

※ 컨버터는 별매 입니다!!



#11 Red



#28 Purple



#21 Pink



#30 Yellow



#1 Black



#41 Green



#3 Blue Black



0.3
mm

PLAISIR

프레이져 만년필
PGB 1000



시간이 지나도 잉크의 건조가 없는 만년필!!

대부분의 만년필은 잉크를 충전한 상태에서 필기를 하지 않고 놔두면, 아무리 캡을 닫아 놓았다고 해도 약 2주가 지나면 카트리지내의 잉크가 상당히 많이 증발하게 되고, 몇 달이 지나면 충전한 잉크가 자연적으로 거의 사라

지게 되어 정상적인 필기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런 약점을 해소하고자 플래티넘사에서는 새로 출시한 프레이져 만년필의 캡의 안쪽 파트와 이너캡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연스럽게 건조되어 사라지는 잉크량을 획

기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 ▶ 뚜껑을 닫았을때 : 143mm
- ▶ 뚜껑이 뒤에 꽂았을때 : 152mm
- ▶ 알루미늄 배럴과 캡

Made in JAPAN



스탠다드 14K 만년필 PTL 5000 (컨버터, 카트리지 방식)

저렴한 가격에 금촉에서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필기감을 느껴보세요.

플래티넘 스탠다드 만년필을 베이스로 한 금촉 모델입니다. 금촉은 마모와 부식에 강하면서도 만년필 고유의 부드러운 필기감을 줍니다. 아울러 미적인 아름다움까지 주는 금촉은 경성 촉인 스틸 촉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부드러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 할 것입니다.

- 펜촉 : 14K 금촉
- 펜촉 사이즈 : EF, F, M
- 펜크기 : 135.5mm(길이) x 12mm(직경)
- 펜 중량 : 12.8g
- 바디 : AS 레진



#1 Black



#70 Burgundy



밸런스 만년필 PGB 3000 (컨버터, 카트리지 방식)

필기량이 많은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보급용 만년필입니다.

가격 대비 최강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세필이지만 부드러운 필기감이 압권입니다. 특히 필기량이 많은 분들이 얇은 그립의 제품을 오래 잡고 있으면 필요 이상의 필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손이 아프거나, 종이를 긁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Balance 만년필의 그립은 적당한 볼륨의 그립으로 적은 필압으로도 필기가 가능하게 설계가 되었고, 4가지 다양한 컬러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드러운 푸쉬형 캡이 기압차에 의한 잉크의 흈 현상을 잡아서 기존 푸쉬형 캡들의 약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촉 생산은 F부터 나오지만 타 제품의 EF보다 조금 얇은 정도입니다.

- 펜촉 : 스테인레스 스틸촉
- 펜촉 사이즈 : F, M
- 펜크기 : 139.5mm
- 펜 중량 : 18g
- 바디 : Acrylic

